

돌싱남녀 “노브라-후즐근한 옷차림 매력 없어”

재혼을 희망하는 ‘돌싱’ (이혼한 남네들이 맞선 자리에서 이성을 보고 ‘비호감’ 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? 남성의 경우는 상대 여성이 ‘노브라 차림’ 일 때, 여성의 경우는 상대 남성이 ‘후즐근한 옷차림’ 일 때 비호감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.

3월 ‘매일경제’ 에 따르면 한국의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‘온리-유’ 와 결혼정보업체 ‘비에나레’ 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동으로 전국 재혼 희망 돌싱 남녀 532명(남녀 각 266명)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

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‘재혼 맞선에서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나’ 라는 질문에 남성은 ‘노브라’ 라는 답변이 30.5%로 가장 많았다. 이어 ‘민낯’ (28.2%), ‘졸바지(레깅스)’ (19.2%), ‘백발’ (12.0%) 순이었다.

똑같은 질문에 여성은 33.1%가 ‘후즐근한 옷차림’ 을 꼽았으며 ‘백발’ (28.5%), ‘초췌한 모습’ (20.7%), ‘민낯’ (13.2%)이 뒤를 이었다.

‘재혼 맞선에서 상대의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우면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가’ 라는 질문에서도 결과는 상이했다.

남성은 36.1%가 ‘신체조건’ 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. ‘활력’ (23.7%)과 ‘말투’ (19.2%), ‘가치관’ (15.0%) 등의 의견도 나왔다.

여성의 경우 ‘활력’ (29.0%)과 ‘가치관’ (26.2%), ‘신체조건’ (23.7%) 등이 큰 차이 없이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. 4위는 ‘생활자세’ (14.3%)였다

이외에도 ‘재혼 맞선 상대가 흡족하지 않더라도 어떤 장점이 있으면 호감도를 높여주는지’ 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의 34.6%는 ‘티 없는 피부’ 를 골랐다. 이어 ‘센스 있



▲ 재혼 맞선 상대의 불만족스러운 점으로 남성은 ‘신체조건’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, 여성은 ‘활력’이 없는 경우를 꼽았다. 사진=shutterstock

는 옷차림’ (27.1%), ‘매력 있는 음성’ (18.0%), ‘가지런한 차야’ (13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여성은 여성은 ‘매력 있는 음성’ 이 32.3%로 가장 많았다. ‘밝은 표정’ (24.8%), ‘센스 있는 옷차림’ (21.1%), ‘티 없는 피부’ (15.0%) 등의 순이었다.

이번 설문 결과와 관련해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“재혼 대상자는 4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도 있지만 50대에서 80대까지의 중장년층도 많아서 연령대가 매우 넓다.” 며 “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를 실망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.” 고 했다.

비에나레 관계자는 “재혼 대상자들에게 미팅을 주선하고 나면 ‘상대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’ 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잦다.” 며 “외모를 중시하는 남성은 아무래도 신장이나 신체구조 등의 신체적 특성이 흡족하지 않을 경우, 여성은 활력이 없고 무기력하면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.” 고 했다.

Queen Spa

정통 지압 여성 전용

Foot(30min) & Body(30min)
발(30분) + 바디(30분)
\$50

Body Massage (1hour)
지압 (1시간)
\$60

GG 퀸스파
714.591.5260
9858 Garden Grove Blvd.
Garden Grove, CA 92844

용문루

GRAND OPENING

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
Eat Good, Feel Good

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

파티룸 **10~50명** 수용 가능

* waiter, waitress 구합니다.*

용문루

T.626.363.4961

월,수,목,금 11:30am ~ 3:00pm

4:30pm ~ 9:00pm

토,일 11:30am ~ 9:00pm

www.yongmoonlu.com

19240 Colima Rd. Rowland Heights, CA 91748